

담양군, '코로나19 확산 대비' 의료인력 역량강화



담양군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확진자 발생 시 팀 구성·역학조사 등 현장경험·노하우 공유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의무화 따른 의료인 대상 방법 교육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강승지 교수를 초빙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팀 구성과 역학조사 및 타 시군 확진자 발생

에 따른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대응능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또한 지난달 13일부터 요양·정신 의료기관에서 신규 입원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가 시작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실

시 예정에 있어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요양·정신 의료기관 의무검사 개요 ▲진단검사 검체 채취방법 ▲Level-D 보호복 착용·탈의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진단검사를 위한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최형식 군수는 "아직 우리 군에 확진자는 없지만, 이번 교육을 비롯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민일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덧붙여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군민 스스로가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약수와 같은 신체접촉 자제하기, 환기시키기 등 생활방역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오는 9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2차) 접수

자부담금 2만원 납부시 20만원 한도 바우처 카드 발급

곡성군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추가(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2020.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확정돼 자부담금 2만원을 납부하면 20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곡성군에서는 총 2,827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곡성군은 지난 4월 10일까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1차 접수 기회를 놓친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번에 6월 9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타 사업등록 및 전업적 직업

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사업시행 직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061-360-7178)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쓰레기 무단 투기 절대 안돼요"

나주시 영산동, 상습 투기구역 24개소 로고라이트 설치

나주시 영산동(동장 이춘형)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로고라이트' (로고젝트)를 지역 곳곳에 설치,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영산동은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구역 24개소를 선정,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로고라이트 설치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로고라이트는 바닥이나 벽면에 LED(발광다이오드) 불빛을 투사,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송출하는 경관조명장치다.

아간 시간 대 식별이 어려운 현수막·표지판 시각적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로 발생하

는 점을 고려해 색상과 이미지(글자)가 눈에 잘 띄어 불법투기 예방·근절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문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안돼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사용 등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송출된다.'

이번 사업을 최초 제안한 김민주 영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고가의 CCTV 장비에 비해 로고라이트는 비용이 저렴하고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며 "주민 모두가 클린 영산동을 위해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효과가 있는 로고라이트 실효성을 적극 검토해 나주시 전 지역 확대 설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구례군 마산면, 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협약식 개최

화엄사 등 관내 12개 기관단체와 함께 지역체험 추진



구례군 마산면(면장 김형욱)은 지난 5월29일 마산면의 학생들을 위하여 화엄사 등 관내 12개 기관단체와 함께 '마산면 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방안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마산면 교육공동체는 ▲마산면 사무소 ▲마산면주민자치위원회 ▲정천초등학교 ▲화엄사 ▲자연드림파크 ▲국립공원지리산전남

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구례구례협동조합 ▲지리산시협동조합 ▲문화관광해설사협회 ▲마산면청년회 ▲정천초등학교 학부모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이 활동을 지원한다.

마산면 교육공동체는 화엄사 사자자삼층석탑 등 효와 관련된 역사 및 지역 문화재 교육과 반달곰 생태학습장 등 지역체험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으로는 마산면 정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효자비 탐방과 녹차시배지 탐방 및 녹차시음, 반달곰생태학습장, 지리산역사문화관 등 지역 명소를 체험하게 하여 핵가족으로 사라져가는 효 문화를 일깨워주고 자연생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줄 계획이다.

공부두뇌를 깨우치는 대립토론 수업을 도입하고 표고버섯 수확 및 음식 만들기 체험도 추진한다.

하교 후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아이들 위해 학부모 모임인 '마산면 마을교육공동체 정천이랑'을 구성하고 마산면종합복지회관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했다.

마산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왕경식)가 12개 기관단체를 총괄하여 추진사업에 대해 계속적인 지원과 피드백을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학부모들과 협의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학부모 등 실무진들을 구성 매월 아이디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김형욱 마산면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정천초등학교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등 마산면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영암군
YEONGAM-GUN

평범한 속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